영광군,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 회의

예상 경로 · 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등

김준성 군수 "관련 부서 간 긴밀 협조"

영광군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제9호 태풍'마이삭'의 북상에 따라 8월30일 오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했다.

상황판단회의에서는 태풍의 예상 진행경로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소관 부서별로 사전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태풍'마이삭'은 오는 2일 15시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내리며,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풍속 45㎧(초속), 이동속도 18~9㎞/H로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태풍 진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을 위한 상황전파, ▲태풍 특보 발효 시 상황별 긴급복구반 가동, ▲주요 관광지·비닐하우스·축사 등 각종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급경사지·침수우려·산사태위험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하수도 정비, 배수펌프장 등 각종 수리시설 점검, ▲특보 발효 시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응급복구 적극 지원 등에 대해 재점검했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지난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적은 양의 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비상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문자 및 재난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한 군민 대상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양플러스 조리교육 실시

함평군보건소, 저소득 지역취약계층 조리교육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는 지난 8월17일부터 2주간 저소득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조리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체중, 빈혈 등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각종 상담·평가 등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올해 지역 다문화가정 등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각 식품별 레시피 책자를 전달했다.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기농 우유, 감자, 계란 등의 보충식품재료를 활용한 영양식 조리방법을 1:1 개별교육과 가정방문상담 등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육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양고위험 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비대면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다중이용시설 휴관

타지역 이동 및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수

목포시는 지난 8월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전면 휴관한다.

경로당 189개소를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목포시종합·상동종합·상리), 노인복지관 4개소(목포시노인·하나노인·하당노인·목포이랜드노인)는 29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장애인복지관 2개소(명도?목포시장애인종합)와 장애인주간보호기관 3개소(명도주간·성골롬반하우스·성산그레이스), 지역아동센터 40개소와 청소년시설 8개소(문화센터2·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수련원·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쉼터 2), 어린이집 185개소도 휴관한다.

다만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장애인주간보호 등은 긴급 돌봄을 실시한다.

관내 도서관, 문화관광 시설은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대상시설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작은 도서관(19개소), 근대역사관(1, 2관), 여행자쉼터, 주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목포문학관, 목포종합예술갤러리, 고하도전망대,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문예역사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유달예술타운, 목포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등이다.

아울러, 유달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국제축구센터 내 목포체력인증센터와 다목적체육관 등의 체육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휴장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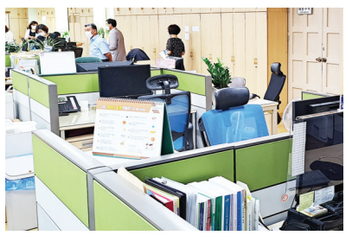
시설 재개관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안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내 코로나19가 발생되어 지역전파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휴관이 결정됐다.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영암읍사무소 '새 단장'

노후 내부시설 비품 교체, 청결하고 안전한 주민서비스



영암군 영암읍은 지난 8월 22~23일 청사 1층 읍사무소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완료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선보이게 됐다.

영암읍은 오래된 책상 등 집기비품 교체 및 민원 편의시설 확충, 민원대 교체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창구를 개선하고, 특히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여 민원중심의 청결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민원용 집기를 맞춤식으로 제작하고 한정된 사무실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각종 민원발급용 전자기구를 동선에 맞게 배치하여 신속한 서류 발급과 여유로운 읍사무소 공간 확보를 이뤄 편안함과 효율성을 도모했다. 영암읍 관계자는 "민원환경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구글(GOOGLE)과 함께한 섬마을청소년 기자학교 수료

신안군의 '구글(GOOGLE)과 함께하는 섬마을 청소년 기자학교' 프로그램이 지난 4주간 구글 미트(MEET)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구글 코리아 뉴스랩의 이성규 티칭 펠로우가 개설한 지정된 플랫폼에 섬마을 청소년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비대면·쌍방향으로 기자수업에 참여한 본 프로그램은 8월 26일로 끝이 났다.

제1기 섬마을 청소년 기자학교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1시간씩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신안군 관내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학교에 신청한 학생은 총 9명으로(도초고등학교 6명,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2명, 하의고등학교 1명) 1학년부터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매주 짜여진 수강과목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26일에 있었던 마지막 수업까지 잘 이수했다.

섬마을 청소년 기자학교 강좌는 ▲구글 검색과 뉴스(만들기), ▲사실확인(팩트 체크)과 뉴스(만들기), ▲구글어스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순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시간에는 강사와 더불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 모두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온라인 집담회를 가졌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지차체로 선정

무안군은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2019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년대비 순위 향상 최우수 지차체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 기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했다.

교통문화지수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운전형태, 보행행태 등 11개 항목을 현장·설문·문헌조사로 평가하여 지수화 한 것으로, 지역별 비교·평가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무안군은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2019년 평가에서 교통문화지수 A등급을 받아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4위를 기록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